

意識發展의 辨證法的 過程(六)

헤겔哲學의 한 顛倒的 應用

梨專教授 裴相河

簡單하게 말하자면 『自己意識은 自己 마음대로 客觀的 世界를 改造하려 든다』그럼으로 『世界改造』의 意識은 『世界享樂』의 意識에서 延續되는 必然的 第二 階段이다.

病든 者가 藥먹고 疲困한 者가 잠자고 破壞된 것을 修繕하며 □□한 것을 改藥하나니 이 모든 人生의 □□事까지 오로지 享樂에서 改造까지의 飛□의 產物임에 지나지 않는다. 病은 『享樂』의 崩壞이며 藥은 病의 『改造』이다. 疲困은 『享樂』의 崩壞이며 잠은 疲困의 『改造』이다. 破壞가 『享樂』의 崩壞일진대 修繕은 破壞의 『改組』를 뜻하는 것이며 □□가 『享樂』의 崩壞일진대 改□은 □□의 『改造』를 뜻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치 못할 疑問이 생겨나니 果然 客觀的 世界로써 吾人의 意思대로 改造될 수 잇는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그리고 吾人은 여기 斷然한 否定을 意識하여 왔다. 왜 그러냐하면 世界改造의 意識이 『自己 마음대로 世界를 改造하자』하는 『自己 마음대로』란 속에 벌써 世界改造의 意識은 沒落 崩壞하지 안흐면 아니 될 宿命的 缺陷을 갖고 잇기 때문이다. 마치 自己의 所有物인 時計 또는 家具等屬처럼 自己 마음대로 能히 改造 할 수 잇기에는 客觀的 世界는 넘우나 偉大스런 存在이기 때문이다. 『自己 마음대로』는 恣意的 또는 純然한 全觀的 意思를 뜻함이며 이는 客觀을 洞察치 안흔 主觀 非洞察的인 私意! 여기에 아모리 잘하였든들 形而上學的 哲學가든 空想的 產物박게는 나오질 안흔 것이다. 이미 客觀을 河察치 안흔 主觀인지라 아모리 高□쳐서 『이러이러하게 世界를 改造하여 보자고 해보았든들 客觀的 世界는 코웃음박게 치지 안흔 너머나 偉大한 存在이다. 그럼으로 世界改造란 主觀的 意向 그것이 非科學的 非洞察的 非客觀的인 單純한 主觀的向인 限에 잇서서 到底히 實現을 期待치 못할 한 개의 『꿈』에 지나지 안혀 버린다. 主觀的 意向과 主觀的 願望에는 何等的 觀心업시 冷冷한 既成世界의 對

일을 그냥 그대로 繼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世界의 苦難을 眼前에 보고 그 가슴에 世界改造의 꿈을 안고서 헛되이 애쓰다가 헛되이 죽어버린 너머나 만흔 思想客이 잇섯슴을 吾人은 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賭死的 熱誠과 天才的 □意에도 不拘하고 그들의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슴을 보드래도 그들이 안고 잇든 世界改造의 꿈이 客觀的 □□性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客觀的 現實에 對해서 얼마나 虛浪하고 힘弱한 것이 었든가 스시로 □明되여 있다. 平和를 그리워하며 樂□을 찾지함은 人生의 根底 汲흔 □望이다. 그러나 平和가 잇서야 할 곳에 殺□이 잇고 樂□이여야 할 世界로써 『苦海』이라고 불려짐을 보고 듯건데 아마리 그것이 썩리 汲흔 願望이라 할지언정 客觀性을 갖지 못한 單純한 主觀的 願望에 지나지 안헛기 때문에 客觀에 對해서 何等의 成就惶을 갖지 못함도 또한 疑心할 배업는 自明의 事實이다. 이와 가튼 世界改造意識의 產物로써 吾人은 中世에서 만히 보는 空想的 社會思想과 및 彼岸을 約束하는 道德的 宗教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 關한 細細한 論述도 또한 □한다. □者는 다시금 □解하라.)

이와 가티 世界改造의 階段도 또한 止揚된다. 沒落의 運命을 스시로 經驗하였다. 辨證說 法的 過程의 不可□인 必然的 止揚이다. 『헤-겔』은 이를 이와 가티 말하고 있다.

『世界改造는 單純한 空想이 매 既成世界의 秩序와 가티 現實(的鬪爭)을 負□ 할 수도 업는 것이며 도리혀 스시로히 沒落하지 안흐면 아니 될 것은 自明하다.』

六. 世界鬪爭

世界享樂이 沒落되고 世界改造가 崩壞됨에 이에 意識發展에는 第三 階段으로 世界鬪爭이 □□된다. 世界改造란 主觀的 意識(正)과 不可改造의 客觀的 現實(反)과의 對立에서 必然的으로 生成下智 안흐면 아니 되는 意識過程이다.